“전북 유사포교당 기승, 주의 당부”

대불청 전북지구, 철수 요구 항의집회
미끼상품 판매해 지역주민 현혹 문제

3~6개월 옮겨 다니며 운영
유사포교당 피해주민 속출
불교이미지 훼손 악영향에
“범종단적 대책 시급하다”

최근 사회문제로까지 거론되고 있는 떴다방식 유사포교당이 전북지역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유사포교당 근절을 위해 청년불자들까지 나선 상황이다.

대한불교청년회 전북지구(지구회장 김성규)는 3월 17일 전북 부안군의 의령 수암사 포교원 앞에서 비불교적 떴다방식 유사포교당 철수를 요구하는 항의집회를 열었다. 유사포교당 문제는 조계종 호법부에서도 폐해를 지적하며 불자 및 지역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이들은 발표한 성명에서 “수암사를 비롯해 다수의 사찰포교원이 떴다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주로 노인들을 상대로 생필품 등을 원가 이하로 판매하며 사람들을 모아 고가의 위패, 납골, 원불들을 강매하고 있다”며 “불자들은 물론 지역주민들에게도 큰 상처를 남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지역사회를 병들게 하는 행위에 대해 지역 시민사회와 주민들이 함께 연대해 광범위한 대응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전북지역의 경우 이번에 문제가 된 의령 수암사, 보성 일월사, 부여 미암사, 김제 성모암 등 여러 사찰이 3~6개월 단위로 지역을 옮겨 다니며 떴다방식 포교원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적으로는 안성 영평사, 함안 마애사, 구미 대원사 등 50여개의 사찰이 떴다방식 포교원을 운영했거나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들 사찰이 교계 언론에 대대적인 광고를 내 인지도를 높이면서 지역주민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대한불교청년회 전북지구 회원들이 떴다방식 유사포교당의 위험성을 알리고자 수암사 앞에서 철수 시위를 벌이는 모습.

이들은 24롤 화장지를 단돈 1천원에 판매하는 등 생필품을 비롯해 떡, 고등어 등도 1~2천원에 미끼상품으로 판매한다. 이를 바탕으로 사람들을 모은 뒤 위패 및 원불을 고가에 판매하고 있다.

게다가 경쟁 포교당의 비위사실을 언론에 제보하는 등 치열한 경쟁을 펼치며 영업을 이어오고 있다. 이는 불사의 상품화, 불교의 위상 추락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어 범종단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부안군의 경우 이들에 대한 폐해가 심각해 부안군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떴다방에 속지마세요’라는 제목의 전단지를 제작, 각 가정에 배포하며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어 불교이미지에 타격을 입고 있다.

이런 떴다방식 영업형태의 근절을 위해 부안군은 이장단협의회, 새마을협의회 등의 단체들이 직접 나서 오전과 오후에 교대로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포교원 앞에서 1인 시위도 이어오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의령 수암사는 최근 허모 씨가 사찰을 인수한 후 대한불교총연합회에 가입하고, 대한불교수암조계종(총무원장 도진)으로 종단등록을 완료했다.

실질적 소유주인 허모 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았다”며 “지역사회에서 철수를 요구한다면 1달 후에 부안에서 철수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철수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당장 철수한다면 마치 죄가 있어 철수했다는 오해를 살 수 있어 당장은 어렵다”고 말했다. 또 “문제가 있으면 법적으로 대응하면 되는데 왜 핍박하느냐”고 반박했다.

허 씨는 “수암사는 부안, 신탄진 등 전국에 15곳의 포교원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위패 120~150만원, 가족원불 350만원, 천도재 149만원, 삼성각 단청불사 구좌당 15만원을, 또 4만3,000기를 수용할 수 있는 납골의 경우 300만원~1500만원 정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취재 중에 만난 정인순 씨(71, 부안읍)는 안성 영평사 포교원에 기당 128만원에 조상 위패 3기, 종불사 7구좌(구좌당 48만원), 부부 납골 900만원 등 총 1600여만원 상당의 불사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그는 “부부 납골의 경우 거리가 너무 멀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환불을 요구했으나 담당자와 연락도 되지 않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관련해 안성 영평사 정림 스님은 “영평사에 추모관을 운영하고 있어 불사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포교당을 운영했으나 불사를 상품화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해 스님이 운영하는 2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포교원 등록증을 회수해 현재는 포교원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부안 정씨의 환불요구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환불조치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선운사 도솔암, 합동천도재 막재 봉행

3월 19일, 보제루 일반에 공개… 문화공간 활용

지장신앙의 성지 고창 선운사 도솔암(감원 성본)이 지난 2014년 12월 선망부모와 조상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입재한 5차 합동천도재 17번째 막재를 3월 19일 봉행했다.〈사진〉

도솔암 극락보전에서 봉행된 이번 합동천도재는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과 총무 심학 스님, 혜안 스님, 수찬 스님, 자운 스님, 수종 스님 등 선운사 대중스님과 불자 300여 명이 동참했다. 도솔암 합동천도재는 매주 일요일 7 · 7재 형식으로 진행되는 도솔암의 대표적 업장소멸 영가천도의식이다.

아울러 도솔암은 지난해 말 완공한 보제루를 일반에 개방했다. 그동안 도솔암을 찾는 불자들과 등산객들은 마땅한 휴식공간이 없어 불편을 겪어왔으나 이번에 보제루를 일반에 공개함으로써 많은 호평을 받았다.

도솔암 보제루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맞배지붕 중층구조 형식에 20평 규모로 한글과 한문 현판은 서예가 강암 송성룡 선생의 4남인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직접 썼다. 보제루에는 주말 마다 고창 티클럽 회원들이 전통차 강좌를 열고, 불자나 등산객들이 자유롭게 차를 마시며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다구 등 각종 편의시설을 구비했다.

감원 성본 스님은 “수행과 문화공동체 형성 및 맞춤형 포교를 지향하는 선운사 정책에 맞춰 누구나 전통차를 마시며 아름다운 주변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탑사 · 쌍봉사, 자비나눔 이어간다

3월 16일, 진안군 11개 읍면
80가구에 쌀 1600kg

진안 마이산 탑사와 쌍봉사가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절에서 모은 자비의 쌀을 전달하고, 지속적인 자비나눔을 다짐했다.

탑사(주지 진성)와 쌍봉사(주지 보경)는 3월 16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진안군 11개 읍면 총 80가구 이웃들을 위해 백미 1600kg(20kg 80포)을 전달했다.

탑사와 쌍봉사는 각각 800kg의 쌀을 마련해 홀몸 어르신 등 진안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추천받은 오치동 씨(주천면) 등 80가구에 나눴다. 이날 전달된 자비의 쌀은 탑사와 쌍봉사 불자들이 부처님께 공양한 소원공양미를 모은 것으로, 지난 2013년부터 해마다 봄과 가을 두 차례에 걸쳐 진안군자원봉사센터에 후원해오고 있다.

탑사 총무 정해 스님은 “불자들의 정성이 담긴 공양미를 지역사회에 나눈다는 것은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실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모두가 힘들어 하는 요즘 어려운 이웃들이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쌀 전달에 앞서 탑사와 쌍봉사 스님 · 신도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쌍봉사 주지 보경 스님도 “지역사회의 기부문화 확산에 도움 되고자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탑사와 쌍봉사는 연탄나눔 봉사,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 김장김치 나눔 등 지역사회 자비나눔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탑사는 갑룡장학회를 통해 꾸준히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쌍봉사는 4월부터 매월 진안군내 11개 읍면을 방문해 찾아가는 어르신 밥상과 경로잔치를 베풀 예정이다.

진안군자원봉사센터 김용진 센터장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노력하시는 진성 스님과 보경 스님을 비롯한 불자님들에게 감사하다”며 “이번에 전달한 쌀은 주변 이웃들에게 희망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백양사, 광주광역시 지역법회 창립

장성지역법회 이어 두 번째로

고불총림 장성 백양사(주지 토진)는 3월 16일 광주광역시청 대회의실에서 ‘고불총림 백양사 광주광역시 지역법회 창립식’을 갖고 광주지역 포교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광주지역법회는 지난 2월 장성지역법회 창립에 이은 두 번째로 도심지역 불교신자를 위한 포교의 일환으로 창립되었다. 행사는 백양사 주지 토진 스님을 비롯해 김광태 신도회장과 장성지역법회 임원진, 광주지역 백양사 신도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주지 토진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시작이 반이다. 처음에는 적은 신도들이 모일 수밖에 없지만 꾸준한 신행활동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할 수 있다”며 지역법회 참가자들에게 적극적인 포교를 강조했다.

광주지역법회는 매월 정기적인 교육을 통한 법회 봉행과 사찰순례 등을 진행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스님 일생 중
가장 확실한 성공!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이곳에 오시면 나이 드셔서 염불이 점점 힘이 드는 분에게 마이크와 1미터 떨어져 모기만한 소리에도 장암하고 은은한 소리를 되돌려 드리는 특수염불시설에 2시간의 염불에도 오히려 신명이 나는 체험을 하신 후 이 시스템을 이대로 법당에 옮기면 스님 일생 중 가장 확실한 성공이 되며 아울러 보살님들이 스님 염불소리가 테이프 소리보다 몇 배 낫다하며 기뻐합니다.

또한 이곳은 특수염불시스템 외에도 각종 음향 (마이크 방생용) 등을 고루 갖추었으니 꼭 오셔서 소리구경 하세요.

※ 단, 오시기 전 날짜와 시간을 반드시 약속하시고 사찰 관계자들과 함께 오시면 소리를 판단하는 객관적 검증이 됨으로 스님에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 (주)염불소리 / 전화 055)343-1191. 010-9471-2026

당신도 명리학의
대가가 될 수
있습니다.

사주를 풀어주기 위해 명리학을 공부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본 책자는 초보도 만세력에서 일주만 찾으면
성격 및 당해년 운세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졌습니다.
포교를 하다보면 제가자들이 많은 것을 물어
오는데 부록편에서는 이를 쉽게 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 우혜안 –



발행인 : 초암사 주지 혜 안 스님
주문처 : 초암사 043-215-1569
010-9405-8186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군 내수읍 초정길 156-9)
입금계좌 : 농협 317-02-322143 (우복진)

慧眼定命書